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10호

### COVID-19

방역당국, 스포츠대회·선수단 방역 관리 강화

### 칼럼 기고

스포츠폭력의 종말, 정말?

글 /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 출처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소년체전, 전국체전 체질 개선...종목별 개최로 바꾸자

글 / 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인준 거부 최철원 당선인, 대한체육회에 법적 대응”

『 대한체육회 』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53개소 공개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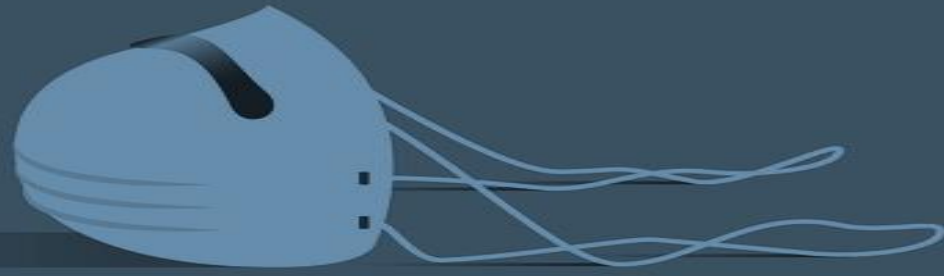
“황희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지원 약속”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방역당국, 스포츠 대회·선수단 방역 관리 강화

방역당국은 최근 스포츠 선수단 집단감염 등으로 스포츠 대회 및 선수단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스포츠대회 및 선수단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 관련 단체에서 대회, 합숙, 훈련 전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해 준수해오고 있다.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3일 잠실에서 열리는 개막전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학교운동부가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운동부의 방역상황을 관리한다.

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로 식사가 가능하다. 숙박·이동 등 기타 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 준수한다.

실업팀,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실업팀의 경우 4월 중 훈련 및 합숙소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운동부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할 예정이다.





# 스포츠 현안과 진단 vol. 20

SPORTS ISSUE & ANALYSIS

2021년 3월 25일

## 스포츠폭력의 종말, 정말?



정용철 / 서강대학교 교수

유명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 발(發) '스포츠학폭(학교폭력)' 이슈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과거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현직 선수들의 이름이 늘어만 가고, 종목 또한 배구에서 시작해 축구와 야구를 거쳐 농구까지 이른바 4대 인기 스포츠를 망라한다. 유망주와 레전드를 가리지 않고 줄줄이 가해자로 소환되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대중은 혼란스럽다. 자신이 좋아하던 선수의 학생 시절 행동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며 분개하다가도, 그동안 체육계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닌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선수를 옹호한다. 연달아 이어지는 선정적인 폭로와 법정 공방까지, 과연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 스포츠학폭? 스포츠폭력!

'스포츠학폭'과 '스포츠폭력',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다. 처음 이슈에 불을 붙인 건 이른바 '학폭'이라는 단어였다. 이미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의 과거 학폭 전력이 폭로되어 구설수에 오른 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현역 선수(최근 쌍둥이 자매의 예능 출연이 잦았다)의 학폭은 비슷한 맥락에서 발화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경험한다.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라는 뜻의 '학폭'이란 단어에 거의 모든 대중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유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온갖 폭력이 난무하던 곳이 학교다. 영화 <친구>의 한 장면처럼



담임선생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모습이 일상이었고 이른바 '일진' 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일도 흔했다.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감각을 건드린 촉발제가 바로 '학폭'이라는 단어였다.



〈그림 1〉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학폭'

그렇다고 스포츠학폭이라고 명명된 이번 사건을 학교폭력이라는 범주에 넣어 동일시하기에는 난감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학교운동부라고 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경험하지 못한 폐쇄적이고 특수한 집단문화 때문이다. 일반학생이 경험하는 폭력의 빈도와 학생선수가 경험하는 폭력의 빈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조직의 폐쇄적 구조로 인한 자료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열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미성년 학생이 성년으로 옮겨가는 대학생 폭력 경험 빈도 통계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반 대학생의 폭력 경험 비율은 입학과 동시에 급격히 떨어지는 데 비해 대학운동부 학생선수의 폭력 경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다. 대학입학과 함께 '이제는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겠지.'라는 새내기 선수의 기대는 입학 전 동계 전지훈련에서 산산이 깨진다. 비슷한 폭력의 서사가 실업팀에서도 이어진다. 작년 7월 온 나라를 흔들었던 고(故) 최속현 선수가 폭로한 참상은 다 자란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를 학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스포츠폭력은 학폭을 넘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인다. 스포츠학폭이라는 신조어가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유다.

대중은 운동부라는 조직 안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다. 실제로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체험한 이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어 왔기 때문이다. 간간이 터져 나오는 피해자들의 외마디 비명을 애써 무시하면서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는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운영되어 왔다. 이제라도 터져 나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 “철없던 시절 무심코 한 행동”

실제로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 사건 초기 언론에 나온 이번 사안에 대한 일부 체육계의 반응이다. 오래전 지지큰 일을 이유로 선수 생명을 끊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당시 비난 일색으로 들끓고 있던 여론을 생각하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발언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대개 말을 삼키는데 그만 나와 버렸고, 이렇게 속생각을 밝히는 바람에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낸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멍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한 생각을 가슴 속에 품고 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좀 패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그래야 메달도 따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패기 충만한, 그러나 침묵하는 비겁한 ‘패기론자들이 있다. 여전히 경기장에서 그런 지도자를 종종 만난다.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경기 중에 선수들에게 욕하고 꺾꺾 꺾꺾 뛰는 다혈질의 지도자들은 과거 실제로 손을 대던(혹은 몽둥이를 휘두르던) ‘패기론자들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리하기에 그렇게 밖에는 가르치지 못하는 슬픈 현실. 눈앞의 승리를 위해, 정제된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리를 지르거나 겁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는 그들.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배운 선수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 방법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게으른 지도자다.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예컨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도할 수도 있는데 예전의 방식을 반복하는 게으름. 게으른 ‘패기론자들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2〉 게으른 지도자, ‘패기론자

체벌과 폭력의 가장 큰 피해는 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데 있다. 설령 이를 통해 한시적인 경기력 향상을 가져온들 피해자들에게겐 심리적 상처가 반영구적으로 남는다. 맞는다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폭력에 굴복하는 인간인가?”라는 자괴감이 생기고 폭력이 반복되면 본능적으로 심리적 공포와 위축이 따라온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에 새겨진 흉터는 그대로 남는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모멸감의 형태로, 그들은 너무도 사랑하던 스포츠계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한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15년 개봉했던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 보았다. 이와 같은 이분법으로 현재를 수습하려는 부류도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니? 그때는 때려도 별 문제가 없던 시대였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체육계에서 나름 합리적이라는 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 과연 그런가? 그때는 맞아도 괜찮았나? 과연 맞을 짓이 있었는가? 영화 제목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때도 맞으면 안 되고 지금도 맞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그때도 맞았지만 지금도 맞는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엘리트스포츠에 여전히 넘쳐난다. 예전과 비교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눈에 보이는 빈도는 줄어들었을지언정 수법과 강도는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졌다.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다. 물론 폭력은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한다. 엘리트스포츠라는 특수한 문화가 조금 더 그 빈도와 강도를 증폭시켰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폭력이 왜 벌어졌는가 보다(이미 이에 대한 분석은 차고 넘친다) 폭력이 벌어진 후 왜 피해자들이 입을 다물었는가에 있다(실은 이 이유도 잘 알고 있다). 다른 분야처럼 폭력이 벌어졌을 때 적절한 조치와 처벌이 있었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 어렵게 입을 여는 피해자들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세간에 알려지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폭력은 아주 오래전 일들이다. 엘리트스포츠계를 떠난 이들이 오랫동안 상처를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야 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역 배구선수 A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은 모두 ‘전직’ 선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전직’이 되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계 폭력근절이라는 아득한 목표는 아마도 더 많은 폭로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오늘의 폭로는 미래의 폭력을 막는 숭고한 행위다.

## 스포츠폭력의 종말, 어떻게?

스포츠폭력을 이 땅에서 근절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돌아왔다. 그래서 밑 어떻게 해야 스포츠계에서 폭력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과 같은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예를 들면 체육특기자 제도, 국가주도의 엘리트 성과체제 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스포츠폭력은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촘촘히 감시한들, 폭력의 씨앗은 이미 곳곳에 뿌려져 음습한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게 되어있다. 천정을 뜯어내고 꼭꼭 닫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해가 들고 바람이 통해야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은 일찌감치 선수를 일반학생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적을 내면 대학을 가고 올림픽이라도 나가게 되어 메달을 따면 나라에서 평생 연금을 준다. 이런 식의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과 단호한 결별을 선언할 때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속해서 어린 체조선수들을 성추행해 175년 형을 선고받은 미국의 래리 나사르는 텍사스 외딴 목장에 만들어진 국가대표 체조선수 양성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체조협회는 올림픽 메달에 혈안이 되었고(모 기업의 스폰서십을 유지해야 했다), 코마네치를 키운 루마니아 출신 카를리 부부를 영입해 고립된 목장에서 어린 선수들을 혹사했다. 폐기되어야 마땅한 '패기'론자였던 카를리 부부는 어린 선수들을 가혹하게 다뤘고 신체 폭력은 다반사였다.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 이런 구조에서는 어디든 독버섯이 자라게 되어있다. 과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물이 자라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상담 채널 안내

☎ 1670-2876    ✉ with@k-sec.or.kr



# 소년체전, 전국체전 체질개선...종목별 개최로 바꾸자

얼마 전, 대한체육회는 오는 5월 예정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를 종목별 겸임대회로 대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종목별 전국대회 중 비중이 큰 대회를 소년체전으로 겸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개최지 미선정으로 인한 잠정 조치다. 소년체전은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최지에서 이듬해 열려왔다. 지난해 구미 전국체전이 무산되면서 올해 소년체전 개최지가 없다. 기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년체전, 전국체전 개최 구조를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초등체전, 중등체전으로 각각 분리하자 : 지금 소년체전에는 초등부(13세 이하), 중등부(16세 이하)가 함께 참가한다. 물론 경기는 초등부, 중등부가 구분돼 진행된다. 기자는 초등부는 기초운동능력 측정 중심으로, 중등부는 종목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초등부는 단체종목, 구기 종목 선수로 출전하기는 이른 시기다. 육상, 수영, 체조 등을 익혀 신체 균형을 잡고 고른 운동능력을 강화할 때다. 중등체전은 성인과 비슷하게 종목별로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 중학생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는 나이다. 중등부는 직업 선수 길에 계속 도전할지, 운동을 즐기는 선에서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때다. 중등체전은 다양한 진로체험이 포함된 학생축전 개념으로 열리는 게 좋다.

■고등부는 지금처럼 전국체전에 포함돼야 한다 :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고등부를 전국체전에서 떼어낸 뒤 소년체전과 묶어 초중고 학생체전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한다. 고등부는 성인급 경기력을 갖추는 나이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고등부면 직업 선수 길로 들어갔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고등부는 대학부, 일반부와 함께 전국체전에서 기량을 겨뤄야 한다. 지금 전국체전 경기는 세부종목에서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분리돼 개최된다. 종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함께 경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물론 지금처럼 모두 분리돼 치러도 괜찮다. 대학, 일반부 선배는 고등부에게 미래 경쟁자다. 미래 경쟁자는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강한 동기를 주는 존재다.

■‘종목별 체전’ 확대 : 지금처럼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종합대회로 개최하는 이점도 있다. 대형 스포츠 콤플렉스 시설 구축 및 이용, 지역 예선을 거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서 갖는 무게감, 모든 종목을 아우르는 종합대회가 주는 상징성 등이 그렇다. 반면 실효성이 낮은 일회성 대규모 행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국내외 종합대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 곳곳에는 대동소이한 대규모 스포츠 콤플렉스가 조성됐다. 대규모 콤플렉스는 더이상 지을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미 많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출현, 도시 인구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 추이, 개별화·전문화·개인화 트렌드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콤플렉스가 필요한 시기도 많이 지났다. 이제는 사각지대에 작은 시설을 추가로 짓거나, 기존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관심사다. 단발성 대규모 행사 개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종목·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부가가치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한 때다.

■궁극적으로는 ‘종목 중심’만이 살길이다 : 기자는 종목 저변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종목별 스포츠 거점도시 구축 등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체육 행정은 종목, 종목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종목들을 한데 묶어 놓으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반면 해당 종목 관계자, 지도자, 선수들은 종목 발전을 위한다면 대승적 합의를 이룬 뒤 힘을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초등체전, 중등체전, 전국체전이 모두 ‘종목별’로 개최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궁극적으로, 종목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스포츠 거점도시들이 대거 구축될 것이다. 거점도시에는 팀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정하면 된다. 축구처럼 팀이 전국에 고르게 많이 분포돼 있거나, 팀 수가 적어도 어느 정도 그룹을 이루면서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거점도시를 여러 개 정하면 된다. 만일 거점도시에서 종목 대회가 계속 개최된다면, 종목 선수, 지도자, 관계자, 식구 등 꾸준히 그곳을 찾을 것이다. 종목별 인프라를 거점도시에 집중적으로 확충하면 훈련·대회 환경도 좋아지게 마련이다. 성인팀 관계자, 해당 종목 융복합 스포츠산업계, 해당 종목 외국팀도 그곳을 찾을 것이다. 이게 종목도 살고, 산업도 살고, 지역민도 사는 진정한 스포츠 거점도시 모습이다.



#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최철원 당선인, 대한체육회에 법적 대응

이른바 맏값 폭행 논란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정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철원씨 측은 최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직 인준 거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아직 법무팀에 접수된 것이 없다”며 “소장이 공식 접수된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철원 씨는 지난해 12월 대한아이스하키 차기 회장에 당선됐으나,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최씨가 과거 맏값 폭행 의혹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최 당선인에 대한 회장직 최종 인준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한편, 회장직 공석이 계속됨에 따라 아이스하키 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공석이 계속될 경우 해당 단체를 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협회의 경우 4월 17일까지는 회장을 선출해야 관리단체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생활체육 활성화!”

## 대한체육회, 1일부터 공공스포츠클럽 공개모집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일(목)부터 신규 공공스포츠클럽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은 법인 설립 기본재산을 비롯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며, 종합형(대도시형: 5종목, 중소도시형: 3종목), 학교연계형(1종목) 중 해당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대한체육회는 대도시형(인구 20만명 이상) 13개소, 중소도시형(인구 20만명 미만) 4개소, 학교연계형(1종목) 36개소 등 총 53개소 신규 클럽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단체는 최대 5년간 대도시형 9억원, 중소도시형 6억원, 학교연계형(한종목) 4억원을 지원받는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은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역점 사업으로, 현재 전국 169개(대도시형 66개, 중소도시형 45개, 학교연계형 58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중이다.

[sky4us@sportschosun.com](mailto:sky4us@sportschosun.com)

### 공공스포츠클럽 공개 모집 세부내용

구분	종합형		학교연계형(한종목)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모집단체 수	13개	4개	36개
지원 규모	최대 5년간 9억원	최대 5년간 6억원	최대 5년간 4억원
신청 자격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중앙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청, 프로구단,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고 기간	2021.4.1.(목)~5.10.(월)		2021.4.1.(목)~6.30.(수)
공고 장소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17개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접수 기간	2021.5.6.(목)~10.(월), 3일간		2021.5.6.(목)~10.(월), 3일간
접수처	대한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
결과 발표일	2021.6.11.(금)		2021.6.30.(수)
설명	대도시(인구 20만명 이상) 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대규모 클럽	중소도시(인구 20만명 미만) 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중소규모 클럽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클럽



# 황희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지원 약속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이사장 사임과 대내외적인 지적 등에 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황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 ▲ 조사인력 보강 등 조직역량 강화 ▲ 조사와 조치, 교육과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유기적 기능 강화 ▲ 단계적인 예산 및 인력 확충 등 지원 방안을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들은 조사 인력 총원과 조사업무 과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8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전담 기구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를 일원화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cycle@yna.co.kr](mailto:cycle@yna.co.kr)



# 28개국 유학생 122명, 한국에서 동계스포츠 꿈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드림프로그램이 28개국 참가자 122명을 확정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렸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드림프로그램은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나라의 청소년들을 국내로 초청해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 일환의 스포츠 발전 지원 사업이다.

16년 동안 85개국 2147명이 참가했고, 이 중 93명이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는 성과를 냈다.

4월 개최되는 올해 드림프로그램은 문체부와 강원도가 후원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청소년을 국내에 초청하는 대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유학생들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열린 온라인 안내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일부터 5월23일까지 비대면 사전 프로그램을 추가해 진행한다.

동계스포츠를 접목한 집에서 운동하기, 케이팝(K-POP) 춤 따라 하기, 노래,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강습으로 기존 동계스포츠 체험뿐만 아니라 국내 유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5월24일부터 30일까지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동계스포츠 체험, 한류 문화강습, 강원도 탐방 및 올림픽 시설 견학,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국가의 청소년들이 2021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남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스포츠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전국 180개 초중고 '운동부' 용품 지원학교 모집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4010100011590000413&servicedate=20210401>

[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 ⑤ 관중 없어도 스포츠 경기는 계속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1172255745>

장흥군,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지 최종 확정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918>

국민체육진흥공단, 대구 체육회와 스포츠산업 발전 위해 협력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1040413121685628>

[단독] 스포츠토토 직원이 8억대 복권 위조해 '꿀꺽'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4935>

[단독] 규정 어기고 스포츠토토 고객센터 직원 3명도 베팅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5953>

[가봤다] "210도 각도로 요가 배우세요" KT 스포츠 코칭 스튜디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2109>

판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밑그림 나왔다...건립 박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66275&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66275&plink=ORI&cooper=NAVER)

인천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운영교 현장 컨설팅 실시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711>

무료수강 실시 '한교진'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가족, 스포츠 심리상담사 등 75개 민간자격증'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40>

팬심 잡고 브랜드 알리고...스포츠 마케팅 '시동'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31\\_0001390069&cID=13001&pID=13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31_0001390069&cID=13001&pID=13000)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